

한국문화교류 소식

49호 2023년 9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특집 : ICKC 해외역사문화 탐방기

태고의 신화와 전설의 나라에서 펼쳐진 K-Culture의 한마당

- 바쿠(아제르바이잔) 태권도 세계대회 참관기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겸 동물복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ICKC 사절단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50주년 기념식 및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다녀 왔습니다. 이번 해외역사문화 탐방은 ICKC 총재 겸 세계태권도연맹의 총재인 조정원 총재가 이끄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창설 5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국위를 선양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해외탐방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의의를 되새기기 위하여 본 탐방에 참여한 이행로 동송갤러리 대표의 탐방기를 수록합니다.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이행로 대표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사를 표합니다. _ ICKC 사무국



이 행 로

동송갤러리 대표

버나드 쇼는 그의 묘지명에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새기면서 해학을 뽐냈다고 하지만 필자는 남편(정순영)과 함께 이번 여행에 동참하면서 처음부터 우물쭈물하다가 큰 낭패를 볼 뻔 했

지만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결과를 얻었으니 이런 다행도 없을 듯하다.

이 여행의 목적은 바쿠(아제르바이잔 수도)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이하 WT) 창설 50주년 기념 및 현지 세계대회에 ICKC(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의 회원들이 주축이 된 한국의 민간 참관사절단의 격려차 방문이었다. 멤버는 리더인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님과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박인숙 전 송파구 국회의원님 등인데 동부인은 2쌍이고 총 10인이었다.

출국 공항에서

남편이 출국(5월 26일 11:30 인천공항) 일주일 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여행참가를 걱정했는데 공교롭게 필자 역시 이틀 전부터 허리통증으로 시작부터 기우뚱하였다. 혹시나 해서 공항에 빨리 가서 좌석을 한 석이라도 비즈니스로 할 수 있을까 했지만 터키항공사 중형여객기는 이미 만석이었다. 원래 바쿠(아제르바이잔 수도)는 모스크바 상공을 넘어가는 노선이 있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래로 중국 중부를 관통해서 날았다. 더구나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가야하므로 오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관계(이스탄불 공항에서 3시간 체류)로 무려 비행시간이 총 17시간이 되었다. 기진맥진했지만 호텔방에 들어 쳐다 본 창가 밖의 야경이 너무 훌륭해 초주검을 잠시 잊었다. 바쿠의 상징으로 카스피해 바닷가에 멋있게 위용을 뽐내는 랜드마크인 일명 '불꽃 빌딩'(페어몬트 호텔)에 들었는데 나중 바쿠 떠날 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들이닥쳐 보안 검색소동을 벌인 것을 보니 최우등 호텔인 것 같고 우리 사절 방문팀을 위해 배려한 것인가 뿌듯하였다.

공항부터 출영 나온 성직자풍의 안온한 표정을 지닌 현지 가이드 김 회장은 바쿠의 교민회장을 역임한 분인데 이 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역사와 지식에 아주 해박하여 일반적인 현지 가이드와 달랐

다. 원래 금융인 출신이지만 우연히 들렀다가 거짓말처럼 이곳 풍물과 인심에 빠져들어 벌써 15년째 거주한다 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우리 교민의 적응의지는 유대인, 중국인과 더불어 정평이 난 지 오래인데 이곳 오지에도 계열 줄이야.

첫째 날

아침(토요일)에 일어나니 우리 부부는 통증이 심해서 도저히 시내관광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양해를 받아 호텔방에서 쉬기로 하였다. 오후 3시경까지 휴식하고 나니 불현듯 참여 못한 당일 일정을 벌충하고 싶어서 호텔 택시를 불러 필자가 관심이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미술관이나 아트 갤러리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들 모두 다행히 5분 거리의 시내 중심가에 위치했다.

필자는 외국에 가면 그곳의 미술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큰 관심인데 허리통증 핑계가 뜻밖에 기회가 된 것이다. 처음 간 미술관은 25인이 넘는(아제르바이잔의 남녀노소를 망라한) 화가들의 작품이 출품된 아제르바이잔 현대화가들의 단체전과 같았다. 작품 내용은 아제르바이잔의 국민소득 수준인 8천불이 막 넘어 갈 때 나타나는 개발도상국가들에 흔히 보이는 민주화 바람 즉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슬람 국가이므로 주로 여권(女權) 억압 실태와 해방의 처절한 노력)를 미술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체적이고 구미나 한국 등 선진 국가들의 현대미술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었다. 다만 한 작가는 동영상 이미지를 이용하여 최근 한국에도 다시 각광받기 시작하는 디지털 아트(비디오 아트; 백남준이 창시한)를 선보였는데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현대 첨단 기술이 스며든 현장으로 보여 특이했다. 다음 옆 미술관으로 이동했는데 전시장 내부가 어둑하고 전시물 모두 커다란 자연석인데 고대 원시인들의 벽화 모양이 새겨져 있어서 자연사박물관인가 했다. 가만히 보니 큰 돌에 세밀하게 벽화를 재생한 젊은 40대 작

가의 조각 작품 즉 암각화(岩刻畵)였다. 예술은 시대와 현장의 산물인데 어떻게 이런 작품들이 바쿠시내에 있을까 의아했다.

나중 알고 보니 아제르바이잔의 암각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그것은 ‘불의 나라’라고 호명된 이 나라가 포함된 코커서스 일대*가 성경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는 아라라트 산이 위치하는 등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인류의 오랜 삶의 흔적이 신화와 전설로 얽힌 그 유명한 조로아스터교(拜火敎)라는 최초 종교가 발원한 곳이라고 한다. 아마도 태고 인류의 흔적으로 숭엄하고 신비스런 암각의 존재가 현재까지도 암각화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라. 남편은 부근 나라들인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을 모두 다녀 온 친구분의 코카서스 3국 여행기**를 이미 보고 필자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남편 역시 현지에서 직접 본 암각화의 기원이나 존재에 대하여 새삼 확인하면서 신나했고 필자도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둘째 날 :

WT 창설 50주년 기념 및

세계대회 전야 축하만찬 참석

우리 방문단의 목적인 세계태권도연맹(WT)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연회가 열리는 시내 전임 대통령(헤이다르 알라예프) 기념관으로 이동했다. 기념 건물은 서울 동대문 프라자를 건축한 세계적인 여성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전임 대통령의 사인을 모토로 지은 것이라 하고 전관을 ‘바쿠 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있었다.

원래 이 나라는 소련에 합병되기 전 20세기 초까지 석유 생산이 세계 최고였고 나중 미국 내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해외자본까지 투자된 노다지 사업지역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당시 유명한 스웨덴의 노벨 3형제(노벨상의 그노벨임)도 모두 뛰어드는 등 국제적으로 더욱 이해가 예민한 분쟁지역이 되었고 최근까지는 이웃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하는 등 복잡한 국내외 정세로 어지러웠고 지금도 현재진행이라 한다. 전임 대통령(현 대통령의 부친)이 소련 연방붕괴 후 아제르바이잔이란 새 국호로 건국되는 권력다툼 와중에서 최종 정권을 장악하여 그 후 아들이 이어받아 30년을 지속해서 부자세습의 독재와 권위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초기 바쿠 지역일대에 고갈된 유전 대신에 바쿠 앞바다 카스피해 해저에서 또 다시 발굴된 대량 유전이 정권의 경제적 기초가 된다고 한다.

현재는 부인이 부통령이 되는 등 강력한 족벌체제로 강화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양상이 흔히 말하는 개발독재에 따른 경제성장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잘 배분된 것이 아닌가 보였다. 여하튼 부자(父子) 정권이 수완 좋은 계몽군주 정치를 하여 왔음인지 현 대통령도 몇 해 전까지 있었던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승전으로 이끌고 인기가 높아서 나름대로 정국은 안정되고 주위 외교도 잘하여 당초 러시아나 중국에서 하기로 한 세계태권도 대회를 이곳에서 유치하였다고 한다. 독재정치의 상징과 과시를 드러내듯 바쿠시내는 마치 서구의 시가지처럼 깨끗하고 건물들은 하나같이 웅장하고 멋있었다. 못사는 슬럼가는 외래인들이 접근 못하게 커다란 칸막이로 막아두었다고 하는데 가보지는 못했다.

* 흑해와 카스피해 중간에 위치하여 남북으로 뻗어있는 산맥으로 남북코커서스 지역인데 일반적으로 코커서스 3국은 남코커서스 지역의 세 나라(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이다. 남북코커서스 산맥과 러시아 북쪽의 우랄산맥을 연결해서 그 좌우지역을 서양과 동양으로 인문지리학자들은 나눈다고 한다. 위키백과 관련 부분

** 후암, 『내 마음에 세상을 담다』 이야기가 있는 집, 2022, pp.306~324.

연회장의 로비는 각테일 공간으로 각국에서 초대받은 태권도 관련 체육계의 인사들로 북적였지만 필자는 유명 건축가가 만든 엄청난 규모로 우아하게 꾸민 미로형 통로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실내 장식의 미학을 감상하느라고 별도로 바꿨다. 로비 곳곳에 예쁜 미희들이 손님을 음악과 미소로 안내하는 등 귀빈대접이 아주 융숭했다. 뜻밖에 남편과 잘 아는 춘천시장도 오셔서 다함께 인사를 나누었는데 금년 9월에 한국 춘천시에 WT 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결정을 이번 대회 기간에 한다고 하여 만사 제쳐두고 인사차 왔다고 한다. 한국 태권도 본부의 유력인사들도 대거 참여한 것으로 보였는데 필자는 잘 모르지만 어색한 초대인사 티가 안 나게끔 같이 온 이향구 회장 부인과 함께 미소를 열심히 지어 보였다. 한참 후 연회장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기다랗고 커다란 연회장의 천장에 길게 늘어놓은 우아

한 조명 디자인이 은은한 라벤더색 빛과 더불어 참으로 찬탄 대상이었는데 남편이 실내 장식은 다른 사람작품으로 콜래보(합작)일거라고 했지만 필자는 그런 경우는 없으며 모두 작가 작품의 일부라고 했다. 이라크 태생인 영국의 세계적 건축가로 7년여 전에 별세한 그녀는 건축 노벨상이라는 프리츠커상 최초 여성수상자인데 순전히 그녀 작품을 보러 세계적 관광객들이 작품 있는 나라에 관광을 간다고 할 정도인데 그런 대형 작품 속에서 만찬을 즐기게 되었으니 필자의 특별한 기쁨은 더할 나위 없었다.

만찬 행사가 시작되면서 우리 박의근 회장님과 비슷한 카리스마 외모를 풍기며 ICKC의 총재도 겸하고 계시는 (실제 두 분이 자주 혼동하여 심지어 대리 인사도 받은 적 있다고 한다) 조정원 WT 총재께서 연단에 올라 그동안 연맹의 태동과 올림픽 종목으로의 안정적 채택 등에 대한 연맹 관계자의 기



▲ WT 창설 5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 촬영. 왼쪽부터 차례로 강석재 ICKC 이사, 정순영 ICKC 운영위원, 필자, 김시범 전 흥천군청 경제국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 조정원 WT 총재, 정현관 국립산림과학원 전문위원, 김은자 님(이향구 대표님의 부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향구 진일세무법인 대표,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님.

여와 주위 도움을 준 분들 그리고 특히 이번 기념 행사와 세계대회를 초치한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을 포함한 주최 측에 대해 일일이 한분 한분 거론하면서 치하하셨다. 이어서 WT 창설 50주년 기념 축하를 위한 감사패 수여와 영상 소개가 있었다.

일찍이 1970년대에 한국 태권도연맹이 북한 태권도협회와 국제간 경쟁으로 시작되었지만 초대 김용운 이사장이 20년, 그리고 현 조정원 총재께서 다시 20여년 역임하시면서 연맹을 반석위에 올리고 이제 한국 태권도는 명실 공히 세계 최고의 스포츠로 우뚝 서게 되었으니, 조 총재님을 포함하여 그동안 기여하신 분들의 노고는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금년 가을에 스위스 로잔 호숫가의 올림픽 기념공원에 태권도 품새 조각 제막식이 있다고 하니 (그 많은 올림픽 스포츠 종목 중에 이제 열 번째라니...) 한국 태권도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머리가 절로 숙여졌다. 곧 이은 연회는 커다란 원탁 10인 테이블에 이 지역 특산 요리 등 다채롭고 진귀한 음식이 제공되고 코카서스 지역의 유명한 와인이 함께 서빙되면서 시작되었고, 식사 내내 화기에애한 분위기였다. 연회를 마치고 건물 바깥에 나온 참가 인사들 모두 늦은 밤 깜깜한 야경 하늘에 펼쳐진 화려한 드론의 기념 축하쇼를 보면서 이틀 후 세계대회의 전야제격인 이파티는 모두 마감되었다.

셋째 날과 넷째 날:

바쿠 북쪽 탐방과 남부 시골관광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서쪽 바다와 접한 코카서스 3국 중 가장 큰 나라로 국토는 남한의 80% 정도가 되고 인구는 천만 명 정도 된다. 기후는 산악지대와 온대와 아열대 기후까지 9개 기후대가 존재하는데 항구도시 바쿠는 연중 온난한 반면 그 북쪽은 사막지대이고 좀 더 아래는 지중해성 기후로 초목이 우거져 있다. 우리는 이틀에 걸쳐 북쪽 사

막지대의 '불타는 산' 야나르 다그와 '불의 사원' 아테쉬카 사원을 보고 아래쪽으로는 암각화 유적지와 진흙 화산 그리고 초원 목축지대인 농가지역을 관광하기로 했다.

셋째 날 바쿠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큰 물레방아 형태의 유전 펌프가 간선도로 부근에 여기저기 보이면서 땅 밑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석유를 뽑아내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마른 황야에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여기저기 모여 무언가 쪼아대는 장관이었다. '불타는 산'에는 지방도로로 한참을 달려 닿았는데 그 의미는 수천 년 전부터 산 언덕중턱에서 가스가 분출하면서 불이 붙어 지금껏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대낮이어서인지 가까이 다가가니 20미터 가로로 벽면에 주황색 화염이 불타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화끈거리면서 서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다. 진짜 비경은 밤이 되어야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한낮인데다 주위가 관광지역으로 너무 인위적 부대시설을 많이 해서인지 신비스런 자연미가 옛날 같지 않다고 수년 전 공무로 다녀간 박 의원님이 귀뜸한다.

다시 관광버스를 돌려 아테쉬카의 조로아스터교 사원에 도달하였는데 기원전 600년경 페르시아의 예언자 조르아스터가 불을 보고 세상을 악과 선의 투쟁의 역사로 보고 악을 태우고 지혜의 빛을 비추는 불을 경배의 대상으로 하여 최초 종교를 열었다고 한다. 이 창시자를 숭배하는 아테쉬카 신전은 오랫동안 수도사와 순례자들의 성지로 알려져 왔고, 그 후 새로운 고대종교(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들이 번성하게 되자 밀교형태로 역사의 뒤안길에 숨어 있다가 20세기 초에 독일의 위대한 현대철학의 창시자인 니체에 의해 그의 저서 『짜라투스트라(조로아스터의 독일명은 이렇게 말하였다)』에서 그가 은유한 새로운 예수로 지칭되면서 각광받게 되었다고 한다. 가이드가 유명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록 가수 프레드 머큐리의 일화를 보냈는데,

즉 머큐리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자 그의 가족 종교인 조로아스터 관습으로 화장하였다고 한다. 콧수염의 머큐리는 노래할 때 열정적 몸짓으로 유명한데 불타는 영혼이 마지막 가는 길에 육체조차 불태워야 직성에 풀렸을까.

넷째 날 우리는 바쿠 남쪽으로 달려 내려가면서 먼저 그 유명한 고부스탄 암각화 유적지와 부근 진흙화산을 방문하였다. 가이드는 고부스탄 암각화 유적의 방대한 지역적 규모가 가히 세계 최고(最古)이고 최대라고 하면서 한국 남쪽 울산의 암각화는 비교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는데 실제 보니 유적지가 과연 넓게 퍼져있고 여러 동물(소나 개 물고기 등)들의 그림들이 여기저기 골짜기마다 산재되었지만 나름 잘 보관 관리하고 있었다. 관련 자료들을 한데 모아 부근 박물관에 별도로 전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 일정상 보지 못해 아쉬웠다. 다만 바쿠 도착 첫째 날 아제르바이잔의 어떤 암각화 화가가 바쿠 시내에서 미술 장르로 작품

을 (아마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선보인 것을 보더라도 인류의 미적 감정의 원초적 표현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이 이 나라 외에 별로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계속 각광받을 것이란 인상이 들었다. 다만 울산 태화강가의 고래사냥 암각화를 직접 보고 온 남편은 단일 규모면에서 본다면 태화강 절벽(옛날에는 울산 앞바닷가 절벽)의 2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암각화가 오히려 이곳 암각화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최대 규모일 거라고 하였다. 아마도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 신청한 이 유적지가 세상에 알려지는 날 한국의 암각화 미술장르도 새로운 K-Culture의 소재로 두각을 나타낼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다시 버스는 진흙화산으로 향했는데 가는 길이 너무 좋지 않아 세대의 택시로 나눠 타고 현장으로 갔다. 엘리엇의 '잔인한 4월'이 연상되는 넓고 황량한 구릉 지대의 여기저기에 아래에서 뿔어져 올라오는 가스가 주변의 잿빛 미세 점토와 때때로 내렸던 비와 범벅이 되어 대형 또는 소형의 죽그릇을 땅



▲ 바쿠 관광 중 다른 일행과 함께 기념 촬영. 가운데 등산스틱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필자.

밑에 묻어둔 모습으로 여기저기서 관광객을 불렀다. 가스분출 일순간에 간헐적으로 보글거리면서 팔죽이 끓듯 웅기종기 터져 나오는 모습이 신기하고 그 가스에 현지인이 라이터를 대자 불이 붙기도 하는 등 흥미만점이었다.

시골길을 장시간 달려오고 여기저기 본다고 몹시 지친 일행을 위해 가이드가 시골 농가이지만 외관상 마치 스위스나 독일 농가의 모습인양 평화롭고 멋진 녹색 초원의 산구릉지대를 보여주면서 어느 별장지 부근에 정차하고 휴식시간을 배려하였다. 차에 내려 둘러 본 일행들은 멀리서 코카서스 산맥이 보이는 등 참으로 멋진 주위 풍광에 놀라면서 분주히 스마트폰 사진을 찍어댔다. 실제로 이 부근에 독일 등 서유럽 관광객들이 휴가를 내어 놀러온다고 하였다. 조금 더 국경 쪽으로 가면 바로 이웃 조지아로 이어지고 조지아 역시 여기와 더불어 아주 좋은 관광지로서 인기가 많아 한국 관광객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하였다.

부근에 멋진 방갈로 오픈방을 수십 개 가진 별장

형 식당에 들러 일행은 이 지역 최고의 별미인 훈제 양고기와 독특한 케밥을 널찍한 등근 전형태의 갓 구운 빵과 함께 즐겼는데 역시 이 지역산 양질의 와인과 함께 드니 여간 흥겹지 않았다.

마지막 날 :

세계 태권도 대회 개막식 참여와 개막 행사 관람

오늘(5월 29일)은 드디어 세계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 날로서 대회장이 열리는 바닷가 조성지에 크게 지어진 다이아몬드 형태의 체육관에 들었다. 세계적인 대회의 개최날인 만큼 이 나라 대통령과 부통령인 부인도 함께 온다고 하여(실제 참석 관람하였음) 보안도 보안이지만 귀빈석 사정이 좋지 않아서 우리 일행은 뿔뿔이 삼삼오오 나뉘어졌지만 세계 태권도연맹의 전문위원이기도 한 강석재 ICKC 이사님의 동분서주로 원래 지정석 부근에 모두 군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행사 시작은 식당 좌우 구석에서 세계태권도연



▲ 세계태권도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ICKC 사절단. 왼쪽부터 박익근 ICKC 재정위원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맹기와 아제르바이잔의 국기가 아제르바이잔의 웅장한 애국가 연주와 함께 등장하면서 시작되고 곧 이어 조정원 총재의 인사와 아제르바이잔 청년체육부 장관의 치사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태권도연맹 이사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고 몇 개의 영상 소개를 마치고 대회전 바로 그 유명한 태권도 시범경기가 선보였다. 시범 선수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팀으로 보였는데 10미터 이상이 되는 높이의 나무판 격파는 언제보아도 통쾌한 볼거리였다. 이제 태권도는 한국의 스포츠가 아니고 세계의 모든 젊은이가 즐기는 글로벌 스포츠 문화가 되었으니 일찍부터 K-culture의 선두주자임이 분명하다. 다만 대회 성적은 초창기 대회 금메달을 휩쓴 시기는 다 지나고 이번 대회에서도 한두 개 메달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였다(최종 한국의 금메달 결과도 하나였음). 세계에 뻗어나가는 한국을 국력을 고려해 볼 때 메달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양보한 메달 수만큼 태권도의 위상은 더욱 빛날 것임에랴.

개막식 행사가 무사히 종료된 사실은 이번 행사 참관이 우리 일행의 최고 목적이었고 또 달성된 만큼 모두들 상당히 고무되고 흡족하였는데, 대회장 바깥 바닷가에서 호텔 버스를 기다리던 우리 일행에게 우연하고도 자연스럽게 발생한 BTS 할아버지 에피소드는 갑자기 새로운 행복을 주었다. 애기 인즉 코카서스 오지의 이 나라 어린아이들이 경기장 바깥에서 가족과 손잡고 기다리다가 우리 일행 중 식물학 권위자이고 분위기 메이커인 정현관 박사님이 농담으로 위아래 까만 정장의 박 회장님이 BTS 할아버지라고 하니 삼시간에 어린애들이 주위에 모여들어 함께 사진 찍는 해프닝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우리 자신들도 모두 은근히 놀라면서도 흥겨워졌던 것이다. 역동성을 탐구하는 동물학자도 아니고 칠순 식물학자의 머릿속에 이런 발랄하고 짓궂은 섬광이 터질 줄이야. 모르긴 해도 한류의 유전자는 한국인 모두에게 내장되었을 터이니. 마침 대기버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마치 개회식 뒷마당이 우리 일행을 위해 열린 것처럼 한참동안 즐거



▲ 정현관 박사님의 농담에 아제르바이잔 아이들이 박의근 회장님 주위로 몰려들어 함께 사진 찍고 있다.

운 시간이 지속되었다. 엄마 등 가족과 함께 온 어떤 아이들은 우리 앞에서 태권도 품새를 과시하는 등 이미 이 나라에도 태권도도 BTS 음악도 널리 퍼져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모두 한국문화 세계전파의 일환일진대 이렇듯 K-culture의 인기가 세계벽지의 어린 아이들까지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한국인으로서 커다란 자긍심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에는 시내 최고의 양고기 전문점에서 만찬을 즐겼는데 박 회장님은 평생 세계를 돌면서 수많은 양고기 요리를 들었지만 이 레스토랑이 단연 최고라고 치켜세우면서 식사 후 주방장을 불러 격려금까지 주고 단체사진을 찍는 등 즉석 퍼포먼스까지 연출하셨다. 그들은 영문을 모르고 바쿠에 태권도 기념행사와 세계대회를 축하 격려하기 위한 민간 사절단으로 온 우리 일행을 위해 마지막 저녁 만찬을 제공해준 조연들이 된 것이다. 아마도 오늘 성공적인 개막행사 후에 조정원 총재님으로부터 특별한 감사전화를 받았고 내일이면 터키 이스탄

불로 떠나는 일정상 이래저래 상기된 감정이 작용되어 바쿠의 마지막 밤을 우리 일행들을 위해 배려해 주신 박의근 사절단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빛은 결과이리라. 출국 전 우려 속의 시작이었으나 마지막은 창대한 바쿠 탐방이 된 만큼 필자 개인으로서도 최고의 여행 경험이었다.

여행 후기

이 후 여행일정은 귀국길에 들른 이스탄불의 관람일정까지 포함되지만 방문 목적과 지면관계상 여기서 마감하기로 합니다. 여행관람기 기고를 청해 주신 박의근 회장님은 물론 여행을 함께 한 ICKC 사절단 여러분과 두루 좋은 기회와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ICKC(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뒤까지 읽다가 앞의 구절을 잇을 정도로 길지만 매력적인 이름의 단체) 만세!



▲이번 탐방에 함께 참여한 남편 정순영 박사(ICKC 운영위원)와 함께.

일본 아이치현의 한국어교육



이 정

아이치현 한글사랑 한국어교실 대표

일본 행정구역은 47도도부현(都道府県)으로 나눌 수 있다. 나고야시가 속한 아이치현은 일본의 중부 지방에 해당하며 도요타자동차가 있는 도요타시가 있어 경제 산업도시로 불린다. 나 또한 한국어 교육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지만 2001년 한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던 남편이 도요타 자동차와 관련해 일본으로 오게 되면서 가족 모두 아이치에 살게 되었다.

2001년 일본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매우 적었다. 5살, 2살 아이들과 나는 일본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할 시기 때문에 가족끼리 한국어를 사용하였고 주위 사람들은 우리들의 대화를 들으며 중국 사람이라고 물었다. 지금은 한류의 영향으로 기본적인 한국어와 인사말 정도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알아듣

는 사람이 많지만 그 당시는 상황이 달랐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언어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한국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주변에 한국학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 내의 민족 학교는 4곳으로 도쿄한국학교, 오사카금강학교, 오사카건국학교, 교토국제학교가 다였고 지금도 그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같은 시기에 같이 들어온 다른 한국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일본학교에 보내야 한다며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일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의견에 의문을 품었던 나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대학원에 들어가 이중언어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결과 부모가 가장 잘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 아이와 대화해야 아



▲ 필자가 운영하는 '한글사랑 한국어교실' 학생들과 함께.

이들과 언어 소통이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터득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덕분에 두 아이들은 집 안에서는 한국어어를 사용하고 사회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성인이 된 지금도 자연스러운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일본에 정착하면서 한류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시작으로 <겨울연가> 드라마로 은사마(배용준)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바로 이어 <대장금>과 함께 드라마 열풍을 시작으로 아이돌 ‘동방신기’ 열풍이 몰려왔다. 석사를 마쳤지만 한국어 교육 경험이 부족해 한국어교육에 대해 잘 몰랐지만 바로 현장에 투입되었다. 여기 저기 교육센터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부족한 강사를 채우기 위해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무조건 환영 받던 시기였다. 2010년부터 그렇게 한국어 교육현장에 들어와 몸으로 체험하고 배워가면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동시에 한국어 교원 자격 2급 취득과 대학원에 다니며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지역 시민 한국어 강좌를 시작으로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은 물론 얼마 전부터는 온라인 세종학당에서 아랍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등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장소를 불문하고 달려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 들어서면서 줄곧 한 가지의 문을 폈었다. 재외동포 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적은 것도 아닌데 왜 아이치(나고야)에는 한국학교(민족학교), 한글학교, 세종학당이 없는가? 2019년 일본 법무성 재류 통계자료를 보면 아이치현이 47개도도부현 중 제일 한국 조선인 수는 32,176명*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치를 통해서 보더라도 충분히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10여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아이치에 한국학교, 한글학교, 세종학당 설립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힘이 없는 나의 작은 목소리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 나 또한 본업이 있기에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생업을 이어 나가기에 바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22년 전 일본에 와서 두 아이를 키웠던 엄마의 입장에서 가까운 곳에 한국학교가 없어 일본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은 매우 컸다. 그리고 아이들이 일본에서 성장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사춘기에 그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한글학교 또한 간절했다. 그러나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친구들을 만나 교류하며, 고민을 나누고 또한 부모님들이 교육하기 힘든 한국어에 대한 교육을 맡아 해 주는 기관인 한글학교가 현재 아이치현에는 하나도 없다. 세종학당 또한 두말할 필요도 없다. 2011년도부터 작은 한국어 교실을 등록하고 혼자서 경영을 했지만 그 해 결산이 원화로 4,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아이치에는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가 많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아이치에 사는 일반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세종학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나의 작은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지만 이런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언젠가는 아이치현에도 한국학교, 한글학교, 세종학당이 만들어져 민족교육,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그것이 한국어 교육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의 사명감이기도 하다.

■■■■■■■■■■

* 도도부현 통계 랭킹으로 본 현민성 <https://todo-ran.com/t/kiji/11618> (2023년 8월 28일)

2023 강원·춘천태권도문화축제 성황리에 막 내려 ... 춘천시, WT 본부 유치 확정



강석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지난 8월 24일, 2023 강원·춘천세계태권도문화축제(이하 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이날 송암스포츠타운 특설 경기장에서 폐막식을 열고 성공 축제를 도운 자원봉사자 등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했다.

8월 18일부터 7일간 열린 이번 문화축제는 세계태권도연맹(WT)이 승인한 4개 국제대회가 동시에 열려 주목 받았고, 특히 춘천에 새로운 WT 본부 건물을 짓기로 한 것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문화축제 기간에 세계태권도비치선수권대회를 비롯해 올해 처음 개최한 옥타곤 다이아몬드게임, 세계장애인태권도오픈챌린지, 세계태권도 시범경연대회 등 WT 승인 4개 대회가 동시에 펼쳐져서 관람객들의 갈채를 받았고, 개막일인 8월 18일에 열린

WT 집행위원회회의에서 연맹 본부 건물을 의암호변에 짓기로 결정했다. WT 본부는 국비 등을 포함해 약 190억원 투입해 4층 규모로 2027년까지 짓는 것이 목표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화축제는 큰 성황을 이루었다. 춘천시에 따르면 누적 경기 관람객은 1만 3,000여명에 이르고, 선수단은 63개국에서 5,704명이 참가했다. 또한 축제 기간 행사장 환경 정비, 축제 안내, 교통 통제 등의 분야에서 1,300여명의 지원 인력이 구슬땀을 흘렸다고 한다.

한편 8월 19일 열린 축제 개막식에는 위호인 ICKC 이사장을 비롯해, 박의근 재정위원장, 전영섭·박원출 감사, 장정용 이사, 심의표 운영위원 등 ICKC 임원 및 회원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조정원



▲ 8월 18일 WT 집행위원회에서 WT 본부 춘천시 건립에 대해 발언하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사진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WT 총재, 이상민 문화축제조직위원장, 김진태 강원 특별자치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등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다. 조정원 총재는 “WT본부가 춘천에 유치된 것에 대해 WT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기쁘다”며 “이번 문화축제행사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앞으로 WT는 대한민국 국기(國技) 태권도가 세계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대회사로 개막식을 열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마침내 춘천이 태권도의 심장부인 WT본부를 품었다. 이제 춘천은 태권도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세계태권도의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WT본부의 춘천 이전을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표해 뜨겁게 환영한다”며 “도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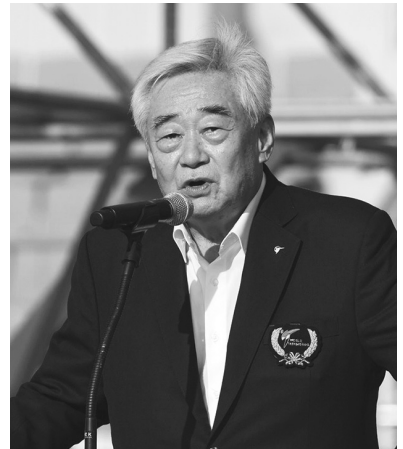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WT가 각종 국제 행사를 개최해 춘천이 전 세계 태권도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개막식은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250여명의 품새 시범, K-POP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졌고, 특히 공군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가 대회장 상공에서 박진감 넘치는 축하비행을 선보여 객석을 가득 메운 태권도 관계자 및 각국 선수들, 춘천 시민의 탄성을 자아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일주일 간 열린 이번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는 원활한 경기운영 및 많은 관람객의 참석으로 비교적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대회기간 내내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폭염으로 인해 낮 경기가 야간 대회로 긴급히 전환되는 등 차질을 겪은 만큼, 내년 대회 개최 시기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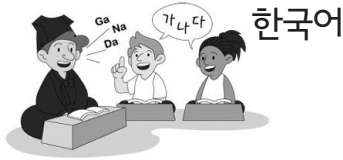
▲ 공군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의 개막식 축하비행.(사진출처: MTN뉴스)



▲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막식에서 대회사 하는 조정원 총재.



▲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폐막식 기념촬영.(사진출처: 연합뉴스)



한국어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윤 대통령 “한글학교, 한인 후손 정체성 찾는 역할… 정부가 지원”

지난 7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주최, '2023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식이 열렸다. 1981년 창립된 NAKS는 산하에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교사 8천여 명이 8만여 명의 학생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가르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성희 NAKS 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여기 계신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힘입어 재미동포 사회는 다양한 성취의 기반을 만들어 왔다”며 “세계 속 한민족의 미래를 위한 차세대 정체성 교육에 헌신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인 정체성을 확립한 차세대들이 미국 주류사회에서 빛나는 리더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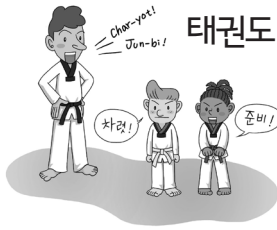
NAKS 14개 지역협의회 소속 한글학교 교사 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한 이날 개최식에서 행사 참가 교사들은 다양한 주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집중 강의를 들었다. 또 K-종이접기를 통한 한국어 교육, 영어권 재외동포 맞춤형 한국어 교재개발 원리와 활용,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기사 출처]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2023/07/22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2020900371?input=1195m>



▲ NAKS 주최 2023 학술대회 단체 기념 촬영 장면.[연합뉴스 사진]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프랑스 대학서 명예박사학위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가 태권도 세계화 및 스포츠를 통한 인도주의적 노력 등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WT에 따르면 조 총재는 태권도의 날인 9월 4일(현지시간) 프랑스 뒥케르크의 리토알 코트 도팔르대학(ULCO)에서 학위를 받았다. 조 총재에게는 11번째 명예박사 학위다.

학위 수여식에는 하산 사독 ULCO 총장과 서정강 WT 사무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사독 ULCO 총장은 “조정원 총재는 WT의 공정·투명한 경쟁 체제를 확립했고, 태권도박애재단(THF)을 설립하는 등 난민 어린이·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줬다”며 “난민 선수가 국제대회·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총재는 “태권도의 날이라는 특별한 날 학위를 받게 돼 더욱 뜻깊다”며 “태권도는 무도와 스포츠 정신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성별·국적·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이가 참여하고 노력하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 출처]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2023/09/05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48200007?section=search>



▲ 명예박사학위 수여 소감을 밝히는 조정원 WT 겸 ICKC 총재.

[사진 세계태권도연맹]

■ ICKC, 세계태권도연맹 50주년 기념 ‘태권도발전기금’ 1만 불 후원

지난 7월 21일(금), ICKC는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5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의 세계적 위상을 더 높이는 데 일조하고자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에 태권도발전기금 미화 1만 불을 후원했다.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의 선친인 故 조영식 박사(경희학원 설립자)의 밝은사회운동을 바탕으로 1979년 설립된 단체로 1981년 UN “세계 평화의 날”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1997년에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해 국제 NGO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 단체이다. 현재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의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조정원 총재는 이번 후원금 전달에 감사를 표했고, 후원금 1만 불은 추후 폴란드 태권도협회에 전달되어 폴란드 소외계층 태권도 교육 등 태권도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ICKC는 세계태권도연맹,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를 통해 우즈베키스탄(2017년), 캄보디아(2018년), 네팔(2019년), 스리랑카(2020년) 등 세계 각지 저개발국가에 태권도 문화 진흥 및 교육을 위한 태권도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밝은사회운동(GCS, Goodwill Cooperation Service) 로고.

■ 7월 문화탐방, “편견을 넘다개 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사진전” 참가

지난 7월 11일(화), 7월 문화탐방으로 “편견을 넘다 - 개 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사진전”에 참가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곳은 날씨에도 많은 ICKC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사진전은 동물복지국회포럼, 국회의원 태영호, 조정훈, (재)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이 공동주최한 전시로, 전시 제목처럼 현행법상 위법인 개 식용을 위한 살육과 도살을 종식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몇 년 간 ‘동물사랑-생명존중 운동’을 의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ICKC도 이번 전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개 식용 종식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전시를 관람하며 관계자와 담소하며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사진전을 공동 주최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직접 만나 ICKC의 생명존중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함께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지금까지 발의된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법안 현황과 한국 HSI가 개 농장을 폐쇄하고 구조한 개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번 사진전을 관람하면서 보다 적극적으

(사)한국문화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로 운동을 수행하자고 참가자들 모두 다짐하며 7월 문화탐방을 마쳤다.



▲ “편견을 넘다-개 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사진전” 참가자 함께 촬영.

■ 8월 문화탐방,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막식 참가

지난 8월 19일(토), 8월 문화탐방으로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행사 개막식에 참가했다. 이번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는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의 춘천 이전을 기념하여 열린 행사로 63개국 5,7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1만 3천여 명의 관객이 축제장을 찾아 다양한 볼거리를 즐겼다고 한다. ICKC 회원들은 춘천에 도착한 후 개막식에 참가하기에 앞



▲ 2023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최식을 관람하고 있는 ICKC 임원 및 회원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서 공지천유원지 내에 있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찾아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에티오피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본 행사인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으로 향했다. 개막식에는 스포츠계, 정재계 인사들과 각국에서 온 태권도 선수들, 많은 춘천시민이 참석해 행사를 즐겼다. 특히 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블랙이글스 비행단이 멋진 에어쇼를 펼쳐서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ICKC 회원들은 개막식 행사를 마친 뒤 남춘천역으로 이동해서 춘천의 명물 춘천 닭갈비로 저녁식사하며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친목을 다진 뒤 열차를 타고 용산역으로 되돌아가서 밤 10시경 해산했다.

2023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3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고륜희, 구병진, 김건길, 김복음, 김소진, 김시범,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재평,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창욱, 김형중, 김홍식, 노승락, 도무회,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박인숙, 박청수, 배대환, 성효동, 송수식, 오일호, 유영찬, 유자효,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창걸, 이행로, 이항구, 이현목, 이호정, 이호진, 장정용, 전영섭, 정경수, 정상설, 정순영, 정인설, 정진화, 정현관, 조춘연, 추호식, 최광, 표재순,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동송갤러리, (주)동우들, (주)루이제,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아트코리아, 양양운수(주), 포스코DX, (주)P&H 가나다순, 2023년 1월 1일 - 2023년 9월 20일까지

총액 : 210,550,650원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최불암 예술인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 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 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운영위원	고용규 (주)동우들 대표이사 이효진 前 주한호주대사관 사무총장	심의표 前 KBS 부산총국장 정순영 前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주요 활동 내역

201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60주년 행사 연길 방문
2013년 서독 광부 파견 50주년 행사 개최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
2015년 파독(派獨) 광부·간호사 헌신 기념을 위한 독일 뉘스라켄 음악회 개최
2017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 태권도 명예 9단증 수여·타슈켄트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2018년 세계태권도연맹과 저개발 국가 태권도·한국어 교육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년 캄보디아, 네팔 태권도협회에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2020년 스리랑카 태권도협회에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2022년 대한태권도협회(KTA)와 태권도 수련생들의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전국 태권도장 대상 '동물사랑·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개최 및 시상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및 시상

이외 재외동포유학생 장학금 수여,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분기별) 및 국내·외 문화탐방,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CKC는 한국어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국제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전 세계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동물사랑·생명존중 운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동물사랑·생명존중

JETI 재능교육

지켜주자, 우리 스스로!



동물을 사랑하면
우리모두 행복해요!

▶ Taekwondo Animal (태권도 애니멀 TV)